

63 大邱府史^{대구부사}

1943년 / 대구부 / 785면 / 14.10-22 대15대 1943

仁川府史^{인천부사}

1932년 / 인천부 / 1553면 / 14.10-23 인 1933

全州府史^{전주부사}

1943년 / 전주부 / 1025면 / 14.10-35 전 1943

木浦府史^{목포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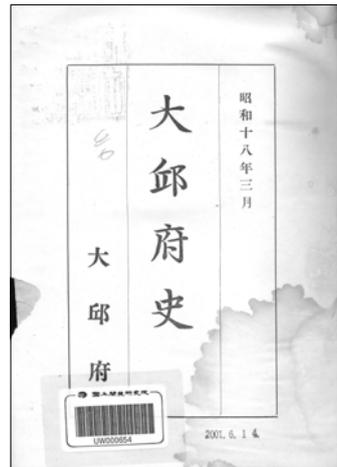
1930년 / 목포부 / 1,082면 / 14.10-36 목 1930

群山府史^{군산부사}

1986년 / 군산부 / 318면 / 14.10-35 군51군 1986

釜山府史原稿^{부산부사원고}

1984년 / 부산부 / 면수복잡 / 14.10-21 부51부 1984



이 들 부사(府史)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사(市史)다. 「大邱府史(대구부사)」는 1943년에 발간한 것인데 그 구성은 연혁편, 부정(府政)편과 특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은 785면의 방대한 분량이다. 대구시는 신라 때부터 알려진 큰 도시인데 「日本書記(일본서기)」에 기록된 것이 1,700년 전이라 한다. 당시의 대구시장은 1935년부터 조선총독부 편수관인 稻葉(이나바)에게 자문을 받는 등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사 편찬에 있어서는 당시의 경성제국대학의 未松保和(스에마쓰)

교수와 藤田 策(후지다) 교수를 주임으로 해서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제3편에서는 대구의 지석(支石) 및 고분과 대구의 지명에 관한 고찰이 첨가되어 있다.

『仁川府史(인천부사)』는 1932년 12월에 출간했는데 그 분량은 1,553면에 달한다. 인천은 우리나라 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도 많고, 자료도 많다.



『全州府史(전주부사)』는 1,400여 년 전 후백제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조선조(朝鮮朝) 발상의 영지로서 널리 세상에 알려져 있다. 편집내용이 향토지(郷土誌)로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삼국시대에서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재해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木浦府史(목포부사)』는 1930년에 발행된 것이다. 해방 후 어떤 출판사에서 복사, 출판한 것인데 총 분량은 1,082면에 달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말미에 ‘여담일속(餘談一束)’이라 하여 목포지방에 떠돌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항 전 구한말에 당시 무안군수가 일본인에게 삼학도를 100엔에 불하했다가 도로 물리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群山府史(군산부사)』는 1935년에 출간했던 것인데 1986년 부산소재 민족문화사에서 복간한 것이다. 분량은 318면이다.

『釜山府史原稿(부산부사원고)』는 100질 한정판으로 일제강점기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출간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분량은 원고만 6권(3,600여 면)이나 된다.

상기한 이들 부사는 해방 후 각 도시 시사편찬의 기초가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平壤府史(평양부사)』와 『咸興府史(함흥부사)』 등을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